

“배송료 부담… 연탄 500장으로 올 겨울 버텨야죠”

에너지빈곤층 겨울나기 현장탐방

②신안 안좌면 대우마을

이른 추위가 몸을 움츠러들게 한다. 좁은 골목, 눅눅 철대문, 매서운 바닷바람. 대다수가 노인들뿐인 섬. 주민들에게 보일리는 연감생심. 추운 겨울에도 전기장판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냉골에 몸을 새우처럼 웅크려가며 밤잠을 설친다.

지난 7일 찾은 신안군 안좌면 대우마을도 마찬가지. 바닷바람이 거센 탓에 육지보다 체감 온도가 더 낮다. 겨울이면 ‘살을 에는 추위’를 정면으로 맞는다. 이곳에서 홀로 살고 있는 강보기(83)씨는 올 겨울을 또 어떻게 넘겨야 할 지 걱정이 태산이다. 강씨는 찾은 이날 아침 최저기온이 5도로 곤두박질 쳤다.

강씨는 전깃불도 없던 80년 전 이곳에 터를 잡았다. 연탄조차 없던 시절 강씨는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 땔감으로 불을 지폈다.

강씨 일가는 30여년 간 겨울을 그렇게 버텼다. 정부가 산림보호정책으로 벌목을 금지시켜 더이상 나무를 벨 수 없게 되면서 그제서야 연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당

하루 3장으로 난방~세수 해결
배송비 추가에 연탄값 더 들어
연탄 기부 봉사자들 발길도 ‘뚝’
납선연탄 폐업맨 살길조차 막막

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섬 지역에 연탄을 공급했다. 강씨는 “연탄을 들여오긴 했는데 어떻게 쓰는 지 몰라 몇개를 태웠다”며 “하루 이틀 지나니 적응됐다. 신문물이 편하긴 편하더라”고 웃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 연탄을 사용했지만 얼마 안가 기름 보일러 등으로 모두 갈아탔다. 강씨 한 집만 연탄을 사용한다.

현재 신안군 전체 섬지역 중 단 12가구만이 연탄을 사용한다. 꺼리는 이유는 수송이 힘들다는 데 있다. 그간 주문에서 배달까지 꼬박 열흘 이상 걸렸다. 배편을 이용해 나르던 과거와 달리 지난 5년 전 천사대교가 개통되면서 연탄수송에 큰 문제는 없었다.



목포 도심에서 1시간 떨어진 신안군 안좌면 대우마을은 섬 지역인 탓에 육지보다 평균 기온이 5도 가량 더 낮다. 강씨가 연탄을 교체하기위해 창고로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강씨는 1년 단 한차례 지원되는 연탄쿠폰에 의지하고 있다. 쿠폰 지원액 47만2000원에 맞춰 500여장만 주문한다. 거리가 먼 탓에 배송비가 추가되면서 평균보다 더 비싸기 때문이다.

강씨는 “평소 거래하던 업체도 연탄공장이 문을 닫으면 조만간 폐업한다고 했다”며 “연탄 땔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내년

겨울은 어떻게 나아질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치솟는 연탄값과 운송비에 정부 지원과 봉사자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그마저도 녹록치 않다. 가장 최근 도움을 받은 자원봉사도 2년 전 해양경찰이 마지막이다. 코로나 19 여파도 있었지만 도심과 떨어진 탓에 봉사자들도 이 곳을 잘 모르

기 때문이기도 하다.

강씨는 하루에 연탄 3장을 땀다. 한번에 1개씩 오전 6시와 오후 2시, 오후 10시, 8시간 마다 갈아준다. 일반 연탄세대가 하루 평균 8개를 사용하는 데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지만 어쩔 수 없다.

이날은 유독 바람이 세차게 불어 연탄 한장을 더 땀다. 연탄 보일러에 불을 지피자 방은 금세 따뜻해진다. 빨갛게 달아오른 연탄을 품은 보일러 온기 덕에 10평 남짓 집안 공기가 훈훈해진다. “생각보다 더 따스하죠?”라며 웃는 강씨는 “1년 500장이면 그럭저럭 버틸만 하다. 바람구멍을 잘 조절하면 연탄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웃었다.

연탄은 난방만 책임지지 않는다. 보일러 위에 주전자를 올려놓고 물을 끓여 음식 조리와 세수, 설거지도 한다. 연탄이 곧 생활인 셈이다.

누군가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다. 연탄값 몇백 원 오르는 게 대수냐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강씨에게 연탄 한장은 그의 삶을 통째로 좌지우지하는 없어서는 안될 보물이다.

글·사진·송민섭·정성현 기자

광주 학교 화장실·교무실 개선 10명 중 8명 “예쁘고 만족해요”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화장실·교무실 등 시설개선사업에 대해 10명 중 8명이 만족감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주요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맘 편한 화장실’의 경우 중·고등학생 142명 중 133명(81%)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만족감을 보인 학생들은 “디자인이 예쁘고 마음편하게 이용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학교 화장실의 경우 지난해 8월에 진행된 조사에서는 25%의 학생이 만족한다고 답변했지만 학생 의견을 반영한 개선 사업 이후 만족감 의견이 81%로 대폭 상승했다.

교직원 3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무실 현대화 사업은 98%(305명)가 “업무 생산성 제고에 기여한 공간으로 바뀌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직원 쉼공간(다운트랙) 조성 사업은 만족도 84%이며 이 중 46%가 주 3회 이상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실 선진화 사업은 96%가 만족에 답했으며 95%가 업무생산성 향상된 것 같다고 응답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교 시설의 경우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이 이뤄져 만족감이 높게 나타났다”며 “학생과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인 기자



동구, 중대산업재해 예방 캠페인

임택 광주 동구청장과 직원들이 14일 동구청 1층에서 출근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 동구 제공

상가·사무실 임대

1F 149m²(45평) 업무·근린생활시설
사무실 / 카페 / 판매점 / 의원 등

광주 대표 상권, 업무 중심지 금남로, 충장로, 학원가 옆

문화전당역 도보 6분 지하철 1호선 역세권

위치 광주 동구 제봉로 137 (대의동 39-1)

▶ 아시아문화전당 옆

全南日報

문의 062) 510-0421